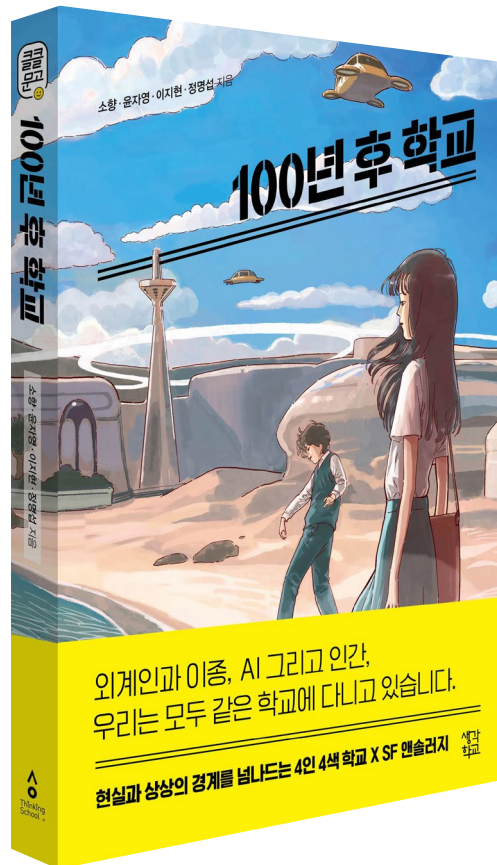




『100년 후 학교』

독서지도안



만든 이 : 권유정(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100년 후 학교』 독서지도안은 생각정원 출판사 블로그
(<http://blog.naver.com/3347932>)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책 소개

“미래에도 학교가 존재할까?”

기후위기, 저출산, 과학기술 발전으로 주변 환경도 삶의 목표도 모두 달라질 미래.
“여전히 학교가 존재한다면 그 이유는 뭘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네 편의 이야기.

「Schoolverse」 ★ 소향

메타버스 학교에 다니는 지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들이 사람이 아니라 AI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지오는 좋아하던 같은 반 친구 하늬가 인간인지 알아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메타버스 학교에서 펼쳐지는 지오의 여정, 그 끝에서 지오가 마주한 건 무엇일까?

「드레이븐 이종 고등학교의 괴짜들」 ★ 정명섭

이종들이 다니는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가게 된 성혁. 운동장도 없는 어두침침한 학교에서 성혁을 기다리는 건 다름 아닌 늑대인간, 뱀파이어 그리고 구미호? 겉모습도 행동도 낯선 이종들과의 학교생활은 어떻게 펼쳐질까?

「특별전형」 ★ 이지현

오직 인재들만 갈 수 있는 화성, 그리고 화성에 보낼 학생들을 육성하는 코스믹 K 학교. 모든 면에서 우수한 시지프는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화성으로 간다. 남은 선발권은 하나. 이대로만 가면 선발권 획득은 시지프의 것. 하지만 시험 중 예상치 못한 강한 폭풍이 갑자기 불어닥쳐 경쟁자인 친구가 쓰러지자 시지프는 갈등한다. 선발자가 될 것인가, 친구를 구할 것인가?

「우린 공존할 수 있을까?」 ★ 윤자영

지구인과 우주인이 서로 분리되어 교육을 받던 어느 날, 지구인 소린에게 당황스러운 소식이 전해진다. 지구인과 우주인을 통합해서 가르칠 계획인데, 하필 소린이 합반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 왜 하필 자신이나며 항의하는 소린을 향해 교장 선생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소린이의 비밀을 손에 쥐고 있다는 교장 선생님. 소린의 비밀은 무엇일까, 그리고 혼합반에서 소린은 우주인들과 무사히 생활할 수 있을까?

차례 및 독서 계획

단계	차시	활동 내용	쪽수
읽기 전 활동	1차시	책을 읽기 전에 <input type="checkbox"/> 『100년 후 학교』의 표지(제목과 표지 이미지)로 내용 유추하기 <input type="checkbox"/> 뒤표지에 숨어있는 주제 미리 생각해 보기	4
	2차시	『Schoolverse』 읽고 활동하기 1 <input type="checkbox"/> 생각 열기: ‘지오와 아빠’ 관계 분석하기 <input type="checkbox"/> 질문에 답하기: 학교의 역할이란?	6
읽는 중 활동	3차시	『Schoolverse』 읽고 활동하기 2 <input type="checkbox"/> 생각 넓히기: 정약용, 사르트르, 그리고 나	10
	4차시	『드레이븐 이중 고등학교의 괴짜들』 읽고 활동하기 1 <input type="checkbox"/> 생각 열기: 성혁이의 시선에서 친구들 바라보고 그려보기 <input type="checkbox"/> 질문에 답하기: 성혁이의 인식 변화	15
	5차시	『드레이븐 이중 고등학교의 괴짜들』 읽고 활동하기 2 <input type="checkbox"/> 생각 넓히기: 생활 속 ‘차별’의 단어들	18
	6차시	『특별전형』 읽고 활동하기 1 <input type="checkbox"/> 생각 열기: O,X 퀴즈로 내용 되짚어보기 <input type="checkbox"/> 질문에 답하기: 우리의 모습과 소설 비교하기?	20
	7차시	『특별전형』 읽고 활동하기 2 <input type="checkbox"/> 생각 넓히기: 인공지능 튜터의 등장, 교사는 사라지는 직업일까?	22
	8차시	『우린 공존할 수 있을까?』 읽고 활동하기 1 <input type="checkbox"/> 생각 열기: 등장인물의 감정선 파악하기 <input type="checkbox"/> 질문에 답하기: 차별과 차이, 의미 다시 적어보기	23
읽은 후 활동	9차시	『우린 공존할 수 있을까?』 읽고 활동하기 2 & 책을 덮으며 <input type="checkbox"/> 생각 넓히기: 공존, 가능할까? <input type="checkbox"/> 책을 덮고 생각해 보기	26

1차시 | 책을 읽기 전에

1. 『100년 후 학교』의 앞표지를 자세히 보고 다음 활동을 해봅시다.

① 표지 이미지를 보고 떠오르는 내용을 자유롭게 써봅시다.

② 『100년 후 학교』 뒤표지를 살펴보면, 미래 학교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가 적혀 있습니다. 각 문장을 살펴보고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Schoolverse」 중

“나를 둘러싼 세계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다 해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면 그건 나에게 무의미해.”

★ 「드레이븐 이종 고등학교의 괴짜들」 중

“이종이었는데, 학교엔 무슨 일이야?” “친구 도와주러.”

★ 「특별전형」 중

“친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너처럼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는 이야기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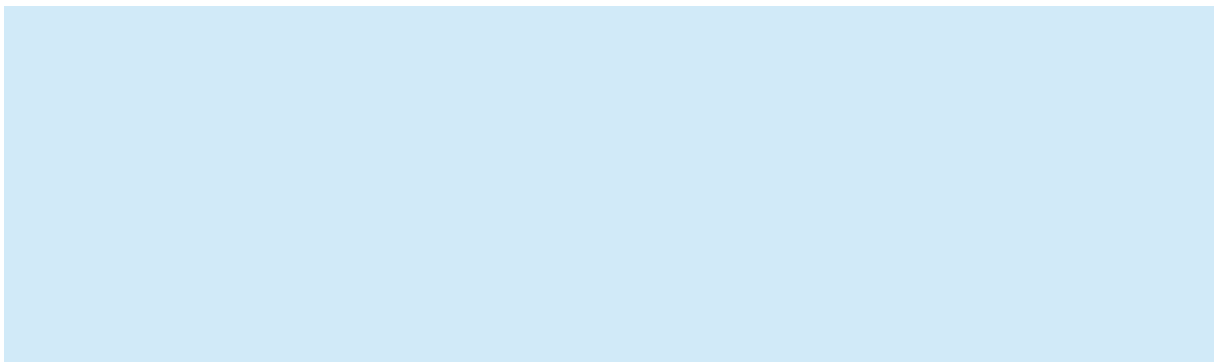
★ 「우린 공존할 수 있을까?」 중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교실에 있었다면 서로 싫어하지도 차별하지도 않았을 것 아니에요?”

(1) 각 문장에서 강조된 단어는 소설 속에서 어떤 의미일지, 작가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일지 생각해 봅시다.

선택	
친구	
시험	
차별	

(2) 위의 각 문장에서 강조된 각각의 단어들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주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책을 읽기 전, '선택, 친구, 시험, 차별'과 관련된 질문을 만들어보고, 질문에 대해 조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2차시 | 「Schoolverse」 읽고 활동하기 1

1. 지오와 아빠는 의견 차이로 인해 끊임없이 부딪히고, 감정의 골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집니다. 지오와 아빠의 의견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나의 생각도 함께 적어봅시다.

p. 13

입학설명회가 끝났다. 접속을 끊고 고글을 벗는 지오에게 아빠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어때? 아빠가 얘기한 대로 정말 끝내주지? 너를 위해 심사숙고해서 고른 곳이야. 마음에 들어?” (중략)

이번 삼 차 교육과정에서는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뉴스 보도도 아빠에게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아빠와 다르게 지오는 덤덤하기만 했다.

“글쎄? 잘 모르겠어. 전부 가상현실에서만 수업한다는 게 좀... 지금처럼 오프라인 학교에 다니면서 필요한 수업만 가상현실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심드렁한 지오의 반응에 아빠는 조금 실망한 듯했다.

“아빠는 여기 입학했으면 좋겠는데.”

“생각 좀 해보고.”

“마감일 얼마 안 남았어. 얼른 결정해야지

“생각해 본다니까?”

아빠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입을 떴다.

“사실은 벌써 등록했어.”

아빠의 말에 지오가 고개를 꺾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뭐? 나한테 묻지도 않고?”

“네가 이렇게 망설일 게 뻔한데 어떻게 기다려.”

“그럼 입학설명회는 뭐 하러 들은 거야?”

지오의 입장	
아빠의 입장	
나의 의견	

“아빠는 원래부터 꿈이 공무원이었어?”

“아니.” “그럼 뭐였는데?”

“전에 말하지 않았나? 드라마 작가였어.”

“그런데 왜 안해?” 아빠가 포크를 내려놓고 말했다.

“지금 활동하는 드라마 작가가 몇 명인 줄 아니? 스무 명도 채 안 돼. 보조 작가 역할도 AI가 대신한 지 한참 됐잖아. 아예 대본 전체를 AI를 쓰는 곳도 많아. 이 분야는 인간 할당제도 통하지 않거든. 확률을 따져봤지. 아빠가 드라마 작가로 데뷔할 확률. 공무원 시험을 통과할 확률이랑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

지오는 확률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았다. 그런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 확률이 높으면 선택이 쉬워지는 걸까? 지오네 반 아이들이 사람이 아닐 확률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하늬와 친구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

아빠가 뭔가 생각났다는 듯 다시 말을 이었다.

“옛날에 아빠랑 같이 드라마 공부했던 친구가 있었어. 아빠가 그만두고 나서도 그 친구는 더 오래 공부했는데, 끝내 데뷔하지 못하고 어느 시골에 있는 문학 공동체에 들어가 산다고 하더라. 똑똑한 애였는데 아깝지 뭐. 진작 아빠처럼 다른 길 찾았으면 뭐라도 됐을 텐데. 세상에 발표하지도 못할 글을 공동체 사람들끼리 돌려보며 살겠지.” 지오는 아빠의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아빠처럼 살지 않으면, 아빠랑 다르게 살면 불행한 거야?” “뭐?” “그 친구 본 지 오래됐다면. 지금 불행한지 행복 한지 알 수 없는데 꼭 본 것처럼 말하잖아. 실제로 만나서 친구 말을 직접 들은 것도 아니면서.”

“뻔하지. 그걸 꼭 직접 만나봐야 아니?”

“그럼 아빠 친구도 아빠가 작가 되기 포기하고 공무원이 되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내 생각에 아빠 친구는 독자가 적더라도 원하던 글을 쓰고 있으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고! 남들이 읽지도 않는 글 써서 뭐 해. 너 아빠 시험 볼 때 경쟁률이 얼마였는지 알아?”

“그래서 아빠는 지금 드라마 쓸 때보다 행복해? 어려운 시험 통과해서?”

지오의 입장	
아빠의 입장	
나의 의견	

일주일 후, 지오는 과학 영재 우주 탐사 프로그램 일 차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에게 합격 사실을 알렸다. 아빠의 표정을 보고 지오는 속으로 '역시나' 했다. 아빠의 표정은 좋지 않았다.

“안 기뻐?” “합격했다니 좋기는 한데, 그래도 먼저 아빠랑 상의 좀 하지 그랬어.”

“아빠는 스쿨버스 입학 나랑 상의했어? 어차피 상의했어도 안 된다고 했을 거잖아. 다른 집은 서로 보내려고 한다던데, 아빠는 왜 그래?”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럼 보내줄 거야?”

아빠는 선뜻 그러겠다고 하지 못하다가 결국엔 지오가 예상한 말을 꺼냈다.

“네 진로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주여행이 보통 일도 아닌데, 이번에는 그냥 포기하는 게 어때? 나중에 커서 관광으로 가면 되잖아.”

지오는 저 밑에서부터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 진로를 왜 아빠가 정해?”

“새삼스럽게 왜 그래? 이미 오래전에 얘기 끝났잖아.”

“그게 뭔데? 네가 뭐 하고 싶다고 아빠한테 말한 적 있어? 아빠가 네 적성 고려해서 얘기했던 거고, 너도 싫다고 말한 적 없잖아.”

“말하면 뭐 해. 보나 마나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했을 거면서. 아빠 맘대로 하려고 좀 하지 마. 난 이제 애가 아니야.”

“네가 왜 애가 아니야. 미성년자인데,”

지오의 입장	
아빠의 입장	
나의 의견	

2. 질문에 답하기: 「Schoolverse」를 읽고 난 뒤, 학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미래의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요?

미래의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학교’라는 공간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3차시 | 「Schoolverse」 읽고 활동하기 2

1. 생각 넓히기: 다음 읽기 자료를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읽기 자료 1>

갑자기 커진 정약용 선생님의 목소리에 지오는 다시 수업에 집중했다. 잠시 탄생각한 걸 들킨 것 같아 웬지 어개가 움츠러드는 기분이었다.

“나는 인간이 선(善)을 좋아하고 악(惡)을 부끄러워하는 기호를 타고난다고 생각했다. 그 타고난 기호를 거스르느냐 따르느냐 하는 선택에 따 선행의 공(功) 또는 악행의 과(過)가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인간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선택과 자주의 권리를 가진 존재인 것이지.”

- 「Schoolverse」 본문 16쪽

<읽기 자료 2>

“반갑습니다. 나는 장 폴 사르트르요. 여긴 내 단골 찻집이고 이 자리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자리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지오의 머릿속에 물음표가 잔뜩 떠다녔다. 긴 문장도 아닌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중략) “본질이란 어떤 것이 존재하는 이유나 목적을 말합니다. 손예준 학생, 신발의 본질을 무엇입니까?”

패션 디자이너가 꿈이라는 예준이는 달에 세워진 한국 기지인 ‘홍대용 기지’ 거주민이다. 예준이는 지오가 반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아이이다. 지오의 꿈은 달 기지 건축가이기 때문이다. 예준이가 화려한 스니커즈를 신은 오른발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더니 발목을 빙빙 돌리며 말했다.

“신발을 패션의 완성이죠.”

사르트르는 예준이의 대답을 듣지 못한 것처럼 지오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지오 학생, 신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신발이 존재하는 이유나 목적이 무엇이죠?”

지오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곧 또박또박 대답했다.

“음, 발을 보호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럼 가방의 본질은요?”

“무언가를 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인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말문이 막혔다. 사르트르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말했다.

“인간에게는 본질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존재하고 싶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서는 것이죠. 나는 인간이 자유롭도록 운명지어진 채, 자유를 선고받고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결정된 것은 자유 한 가지이며, 개개인의 삶의 목적은 이 자유를 바탕으로 한 선택에 달린 것이죠. ‘인생은 B와 D사이의 C이다.’라는 말은 들어봤나요?”

누군가 들어봤다고 하자 사르트르가 말을 이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정답도 없는 선택을요. 그래서 인생은 탄생(Birth)과 죽음(Death) 사이의 선택(Choice)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요즘 여러분이 고민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봅시다.

- 「Schoolverse」 본문 18쪽

(1) 읽기 자료 1과 읽기 자료 2는 각각 정약용과 폴 사르트르가 '인간'에 대해 설명하는 책의 본문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를 읽고 각 학자의 '인간'에 대한 주장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정약용

장 폴 사르트르

<읽기 자료 3>



읽기 자료 출처: <https://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4154>

사진 출처: JTBC 스카이캐슬 소개 사이트 (<https://tv.jtbc.co.kr/photo/pr10010969/pm10050297/detail/13391>)

“어머니는 도대체 언제까지 저를 무대 위에 세우실 겁니까?
그만큼 분칠하고 포장해서 무대 위에 세워 놓고 박수받으셨으면 되셨잖아요.
어머니 뜻대로 분칠하시는 바람에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르고 근 50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여보, 당신 얼굴이 뭔데요? 어머니 아들, 예서, 예빈이 아빠, 내 남편, 주남대 교수,
그거 말고 당신 얼굴 뭐? 뭐가 더 있는데요?”

“강준상이 없잖아, 강준상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허깨비가 된 것 같다고 내가!”

인기리에 종영된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한 장면이다. 남부러울 것 없던 50세의 대학병원의 교수가 무너져 내린다. 학력고사 전국 1등, 유명 대학병원 주임교수이자 기획조정실장, 전교 1등 고3의 아빠, 더 바랄 것 없어 보이는 그는 왜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고 울먹였을까.

인간은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생산성을 위해 인간은 분업을 택했다.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성의 지속적인 증대를 위해 분업은 갈수록 세분화되어 왔다. 그 덕에 인류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지만, 개개인은 당장 혼자서는 생존에 필요한 식량조차 조달할 수 없게 되었다. 현대인은 살아남기 위해 타인에게 전문성을 요구하고 또 타인으로부터 요구받는다. 이제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해내려면 고도의 전문적 직능이 필요하다. 각자가 자기 분야의 첨단에서 다른 사람들은 감히 해내지 못할 일을 해내도록 요구받는 것이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사회적 평가는 결국 그 사람의 사회적인 효용에 달렸다. 효용에는 희소가치의 개념이 포함된다. 그가 얼마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를 대신할 사람이 얼마나 드문가이다. 나를 대체하는 사람이 없을수록 수입과 명예가 늘어난다. 이에 사람들은 좀 더 특별한, 좀 더 드문 사람이 되려 한평생 공을 들인다. (중략)

이러한 암묵적인 압박은 ‘대학 가는 데나 집중하라’는 부모와 선생의 핀잔으로, ‘가정 챙기다간 여기 오래 못 남아 있을 걸’이라는 선배의 충고 같은 협박으로, ‘나이가 있는데 집은 좀 넓혀야 하지 않냐’는 걱정을 가장한 자랑으로 삶 도처에 전시된다. (중략)

성취에 실패한 이들,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한 이들뿐 아니라, 끊임없이 경쟁에 이겨온 사람들, 더 가질 것 없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도,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무너져 내린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회가 평가하는 그의 가치, 효용가치이지, 스스로가 정의 내린 자신의 정체성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아 정체성(identity)은 스스로 생각하는 확고한 자기 자신의 상이다. 이는 절대적인 속성을 띤다. 시간이 지나도 불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가치체계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엇을 먹을 때 기쁘고, 어디에 있을 때 흥분하며,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감동하는지에 대한, 나만이 내릴 수 있는 답들이다. 결국, 하나뿐인 삶을 어떻게 채우고 싶은지에 대한 나만의 답이 자아 정체성이다.

당연히 옳고 그름이 있을 수 없고, 정체성이 확고한 이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인 찬사와 비난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나아간다.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를테면 좋은 아빠, 믿음직스러운 아내, 유능한 직원이 되고자 하는 노력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다만, 여기에만 몰입하다 보면 사회에서의 역할을 획득하는 것과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게 된다. ‘아무개의 직업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 ‘정신과 의사 아무개’가 되는 것이다.

되고 싶은 스스로의 모습, 살아가고 싶은 삶에 대한 섬세한 고민 없이는 자아 정체성,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의 빈칸을 채울 수 없다. 직업이 무엇인지, 얼마나 가졌는지, 어떠한 명예나 권력이 있는지는 타인이 써워준 꽃목걸이에 불과하다. 정체성이라는 빈칸을 오래 비워둘수록 자본주의가 조장하는 욕망, 사회적 필요, 가족의 기대 같은 타인의 답들이 이곳을 채울 가능성이 높아진다. 누가, 언제 썼는지도 모를 답들이 마음대로 쓰이다 보면, 그 결과물이 아무리 매력적이라 해도 스스로 쓰지 않았기에 낯설 수밖에 없다. 문득 거울에 비친 이 사람은 누구일까, 고민이 드는 것이다.

(2) <읽기 자료 3>은 대한민국의 입시와 교육 현실을 반영하여 제작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등장인물 강준상의 대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50세의 대학 병원 교수는 왜 자신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일지 위의 글을 읽고 생각해 봅시다.

(3) 위의 활동 1과 2를 정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조원들과 의견을 공유해 봅시다.

나의 의견	
()의 의견	
()의 의견	
()의 의견	

(4) <읽기 자료 2>에서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설명하며, 3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각각의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을 적어봅시다.

Q. 여러분은 오늘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

Q.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

Q. 요즘 고민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4차시 | 「드레이븐 이중 고등학교의 괴짜들」 읽고 활동하기 1

1. 드레이븐 이중 고등학교에 도착하자마자 만나게 된 이중 친구들의 모습을 묘사한 글을 읽고, 친구들의 모습을 상상해서 그려봅시다.

<p>그런데 뜻밖의 상황과 마주한 것이다. 게다가 가까이 다가온 노란 머리는 사람이 아니었다.</p> <p>“느, 늑대인간?”</p> <p>노란 머리에 푸른 눈을 가진 늑대인간은 성혁이 또래였는데 머리가 좀 컸다. 보통 면도를 하는 다른 늑대인간들과는 달리 온몸이 털로 덮여 있었다. 녹색의 교복을 입었는데 오른쪽 가슴에는 드레이븐 이중 고등학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가까이 다가온 노란 머리의 늑대인간은 다짜고짜 성혁에게 코를 들이대고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았다.</p> <p>“뭘, 뭐하는거야?”</p> <p>물론 입 밖으로 항의하지는 않았다. 축축한 코 아래 송곳니 가득한 입이 보였기 때문이다.</p>	<p>영클</p>
<p>1) “영클! 그만해. 애 오줌 싸겠다.” 안 그래도 살짝 찢끔거리던 성혁이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게다가 목소리의 주인공은 교복을 크롭티처럼 고쳐서 입은 또래의 여학생이었다. 큼지막한 눈이 너무 반짝거리어서 똑바로 바라보기 어려울 정도였다.</p> <p>2) 여학생은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으로 성혁이의 턱을 살짝 들어올리며 대답했다.</p> <p>3) 홍채 인식 장치에서 뿜 소리가 나면서 문이 열렸다. 문 앞에 선 아르테미스가 영딩이에서 꼬리 아홉 개를 부채처럼 펼쳤다.</p>	<p>아르테미스 (이미숙, 옥화당 마님의 둘째 딸)</p>
<p>“바, 박쥐?”</p> <p>아무리 어둡다고는 해도 별건 대낮에 박쥐가 사람들 많은 곳에 날아다니는 게 믿기지 않았다. 머리 위에서 팔랑거리는 박쥐에게 아르테미스가 말했다.</p> <p>“동식아, 뭐 해!”</p> <p>그러자 펄 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고, 박쥐는 사람으로 변했다. 교복에 망토를 두른 창백한 얼굴의 남학생은 냉담한 눈으로 성혁이를 바라봤다. “전학생인가?” 고고하고 자만심 넘치는 남학생의 말투에 옆에 있던 아르테미스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대답했다.</p>	<p>오르테가, 동식이</p>

오른쪽이와 왼쪽이

1) 두 남학생은 성혁이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재생자는 신체가 부패하기 때문에 재사회화가 된 이후에도 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두 남학생도 마찬가지로 팔과 다리가 로봇처럼 어색하게 움직였다. 마치 돌이 하나인 것처럼 움직이며 가까이 오자, 앙클은 성혁이 뒤로 물러났다.

2) 재생자 특유의 창백하고 흐릿한 눈동자를 가까이서 보자 속이 메스꺼웠다.

3) 왼쪽이라고 불린 재생자가 한쪽 손을 어색하게 들었다. 성혁이 역시 어색하게 웃으며 따라서 손을 들었다. 재생자 둘은 동시에 돌아서서 가던 길을 갔는데 발걸음과 손동작이 마치 한 사람처럼 똑같았다.

2. 질문에 답하기: 이종에 대한 성혁이의 인식 변화를 살펴봅시다.

(1) 성혁이가 이종인 앙클, 아르테미스, 오르테가와 친해지기 전, ‘이종’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을 표현한 부분을 찾아서 적어봅시다.

65쪽,

“어떻게 진정하냐고! 요괴 학교에 가게 생겼는데.”

“거긴 요괴 학교가 아니라 드레이븐 이종 고등학교입니다.”

“뱀파이어랑 좀비, 거기다 늑대인간이랑 구미호까지 거기에 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괴 학교지!”

이번에도 엔다인이 경고음을 냈다.

“데시벨이 경고 수준까지 높아졌습니다. 진정하세요.”

“아, 진짜!”

성혁이는 욕설을 말하려다가 애써 참으며 거실을 빙빙 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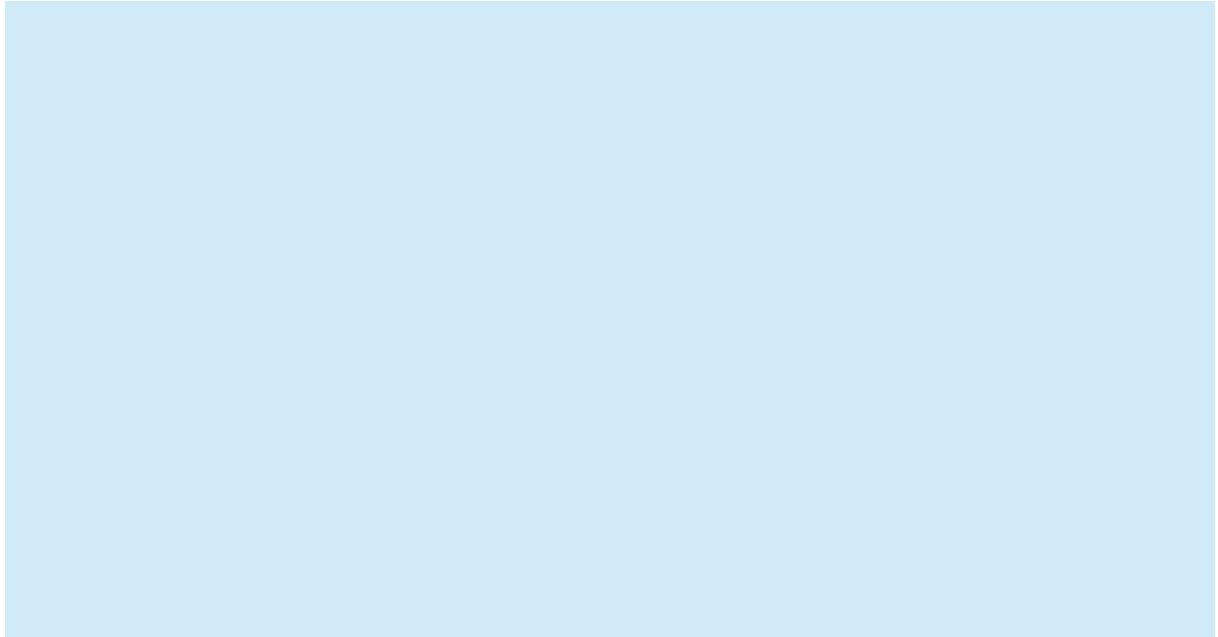
(2) 앵클, 아르테미스, 오르테가와 친해지기 전, 성혁이는 이종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나요?
위의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해 봅시다.

(3) 성혁이는 앵클, 아르테미스, 오르테가가 만든 괴짜 클럽 ‘드레이븐 이종 고등학교의 괴짜들’의 정식 멤버로 들어가게 된다. 다름의 벽을 허물고 진정한 친구가 된 성혁이와 친구들은 보름달이 뜰 때, 어떤 문제를 만들어서 풀지 상상해 봅시다.

5차시 | 「드레이븐 이중 고등학교의 괴짜들」 읽고 활동하기 2

1. 생각 넓히기: 생활 속 '차별'을 찾아봅시다.

(1) 「드레이븐 이중 고등학교의 괴짜들」에서는 인간과 이중 간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혁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우리 사회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정리해 봅시다.

• 참고 자료

* 차별 금지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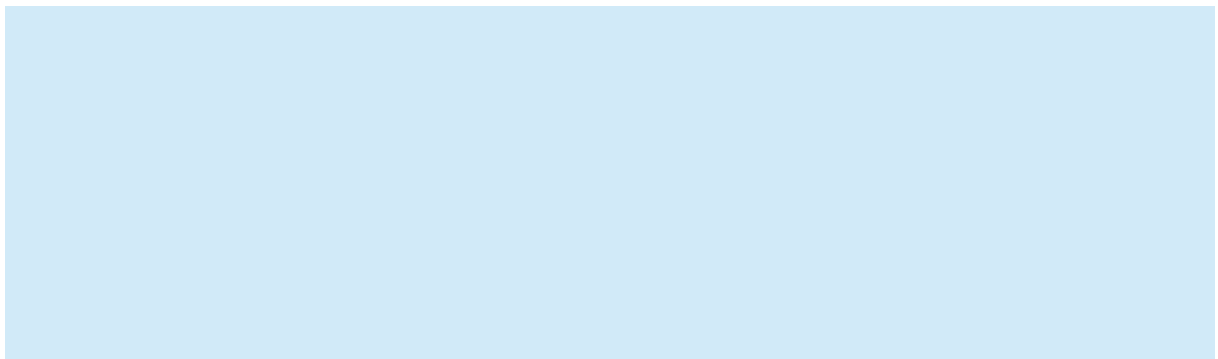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5780&boardNo=7605772>

*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진행하는 관람 캠페인

<https://www.manutd.com/ko/news/detail/man-utd-chelsea-and-premier-league-to-promote-no-room-for-racism-campaign>

* 반크, 코로나19 아시아인 차별에 대항하는 캠페인

<https://www.yna.co.kr/view/AKR20200504028500371>



(3)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친 ‘차별’의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를 찾아보고, 바른말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참고 사이트: https://www.thekmagazine.co.kr/data/theK_2203/sub2_01.php

편견과 왜곡이 담긴 차별적 단어	이렇게 씁시다!	왜 사용하면 안되나요?
불구자		
병어리 장갑		
장애우		
정신분열증		

6차시 | 「특별전형」 읽고 활동하기 1

1. 「특별전형」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O, X 문제에 답을 해봅시다.

① 구토와 시지프는 같은 학교의 학생이지만, 구토만 화성 정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② 코스믹스 K 학교에서는 수업 이후 학생들의 데이터를 라키비움으로 전송해 저장한다.	
③ 버닝은 인도 출신 NP유형의 학생으로 화성 주거지역 개발자인 아빠의 도움을 받으며 과제를 수행한다.	
④ 시지프가 조작한 아이워치는 구토의 것이었다.	
⑤ 훈련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튜터 혁준이 시지프의 뇌 반응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한다.	
⑥ 구토는 가상 훈련 도중 사고를 당해버려서 훈련을 포기하게 된다.	
⑦ 가상 훈련을 통해 국제항공우주국에 갈 수 있도록 추천받은 학생은 버닝이다.	
⑧ 시지프는 성적을 조작했다고 말하며 스스로 정정을 요청했다.	
⑨ 시지프는 NP유형이 아니지만, NP유형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며 학교생활에 임했다.	
⑩ 인공지능 튜터들이 학생 데이터를 매일 대조하며 확인작업을 수행하므로 데이터 간의 허점은 발생할 수 없다.	

2. 질문에 답하기: 본문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며 각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여러 단계에 걸쳐 정규과목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에 따라 화성 정착권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긴급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확인하는 훈련이자, 테스트입니다.”

존은 아무런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표정으로 학생들 앞에 서 있었다.

검정, 초록, 파랑, 보라, 서로 다른 색깔의 작은 눈동자들이 그를 응시하고 있지만, 존은 어떤 눈빛도 붙들거나 가벼이 스치지 않았다. 단정한 이목구비만큼 단호한 말투가 오히려 학생들의 흥분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카리스마 쯤네.”

뒤에서 보고 있던 수연의 한마디에 혁준이 킁킁 웃음을 띠트리며 소곤댔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휴머노이드가 부러운 순간이죠.”

“그게 왜 부러운 거니? 끔찍한 거지.”

「특별전형」 본문 147쪽

(1) 수연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휴머노이드가 부럽다는 혁준의 말에 “그게 왜 부러운 거니? 끔찍한 거지.”라고 대답합니다. 수연은 왜 끔찍한 일이라고 말하였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벌하시는 건가요?’

시지프가 관측실을 향해 애절한 눈빛을 보냈다. 분명 훈련장을 보고 있으리라고 짐작했다. 눈 주변은 이미 눈물로 얼룩져있었다. 관측실의 스크린을 통해 시지프의 물기 어린 눈빛을 읽은 혁준은 주먹을 힘껏 움켜쥐며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특별전형」 본문 160쪽

(2) 시지프는 그동안의 활동을 평가하는 가상 훈련에 참여하였습니다. 구토와 남겨져 회오리 바람을 맞게 된 상황에서, 왜 관측실을 바라보며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벌하시는 건가요?’라고 생각했을까요?

“친구가 어떻게 되든 말든, 너처럼 시험만 통과하면 된다는 이야기 말이야?”

기운을 차린 구토도 버닝을 향해 소리쳤다.

“야! 버닝, 너 같은 인간만 가는 화성이라면 나는 안 가련다. 혼자만 살고 싶은 것이 네 꿈이라면 지옥도 그럴 가치가 있을거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걸 테스트라고. 우리가 알기알부할 게 아니야. 재난 상황을 가정해서 대처하는 거라고. 안전하게 대피소를 찾아가는 것이 이번 해결 과제야.”

이렇게 말했지만, 버닝은 두 아이의 태세 전환에 불안한 마음이 소용돌이쳤다.

“그래, 우리가 과제를 해결해야지. 근데 너는 너 혼자만 아난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시지프,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해. 내가 뭐?”

“버닝, 너는 아바타야. 너희 아빠의 아바타라고.”

“야, 질투도 적당히 해야 보기도 좋은 거야. 우리 아빠가 아니었으면 너희 엄마 능력으로 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특별전형」 본문 163쪽

(3) 우리의 삶에서 우선시해야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7차시 | 「특별전형」 읽고 활동하기 2

1. 생각 넓히기: 인공지능 튜터의 등장, 교사는 사라지는 직업일까? 아래 두 개의 제시문을 읽고, 미래의 교사는 인공지능이 될지, 계속해서 사람이 맡는 직업이 될지 생각해 보고 의견을 정리해 봅시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튜터 헬씨. 저도 당신들처럼 완벽하고 정교한 튜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가 놓친 게 있었습니까?”

“그게 뭐죠?”

위원장 나프토가 흥미로운 듯 물었다.

“관심입니다. 살아있는 학생은 데이터만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학생의 특성은 항상 지켜보고 느끼고 생각해 야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중략)

잠시 생각하던 존이 멈춰선 말을 이었다.

“저는 이 일을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 올바르게 가는 거죠. 저는 이번 일로 인공지능 튜터가 가지고 있는 대량의 정보 분석력이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 튜터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학생들이 발표한 답변을 자동으로 분석하여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인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기술로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성과 상호작용, 그리고 가르치는 기술 밖에 존재하는 관심과 애정입니다. 튜터 혁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한 학생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건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상호 보완하며 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업을 통해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전형」 본문 177~179쪽

학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 교육혁신에 몰두하고 있는 것도, 미래 시제에 어울리는 교육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절대 절명의 단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미래 사회의 일자리는 창의적 사고를 더욱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는 단편적 지식을 중시하는 주입식 교육, 교사 중심의 수업, 객관성만 요구하는 평가,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대학입시 제도 등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할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다.

소통과 협력의 인간관계 유지, 정의로운 가치관의 사회화 과정 등은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학교교육은 개인의 성장만 생각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중략)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느냐’라는 것을 넘어서서 ‘공부한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 접근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지식의 활용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하느냐’의 판단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올바른 인성이다. 사회의 초고속 대변혁에 따르는 혼란이 커질수록 올바른 인성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곳이 학교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인공지능이 이런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이 이런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교는 더욱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출처: 서울교육 2019 가을호(236호) 권두 칼럼(전병화)
<https://url.kr/chp4wf>

8차시 | 「우린 공존할 수 있을까?」 읽고 활동하기 1

1. 「우린 공존할 수 있을까?」는 주인공 장소린의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이야기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장소린의 변화하는 감정, 생각을 함께 정리하며 책의 내용을 되짚어봅시다.

사건	장소린의 감정과 생각
학교에서 갑자기 지구인과 외계인의 혼합반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됨	
혼합반 이동 대상자인 것을 알게 됨	
조퇴하고 난 뒤	
혼합반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교장실에 찾아감	
자신이 휴머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됨	

사건	장소린의 감정과 생각
<p>타우언, 뮤언과 함께 모듬 활동을 하게 됨</p>	
<p>모듬 활동의 결과를 발표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됨</p>	
<p>모듬 활동을 마무리한 후, 친구들과 하교하던 길에 교장 선생님과 대화를 하게 됨</p>	
<p>인경과 휴머린에 대한 대화를 하게 됨</p>	
<p>담임 선생님의 사건 이후</p>	
<p>아이들에게 연설 후, 교실 밖으로 나옴</p>	
<p>담임 선생님을 공격한 범인을 잡고 난 이후</p>	

2. 질문에 답하기 : 본문 내용을 발췌한 아랫글을 읽고, 차별과 차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이번 실험 결과는 최종 성적에 반영될 것이며, 육십 점 미만은 과락으로 점수를 못 받을 줄 알아라.”

물리 선생님은 지구인을 특히 싫어한다고 했다. 아마 이번 모둠 수업도 나와 인경을 골탕 먹이기 위해 준비했을 것이다. 정신을 차린 인경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것 같았다. 인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이건 불공평해요. 소수만 있는 저희를 차별하는 것이라고요.”

물리 선생님이 얼굴을 찌푸렸다.

“혼합반 실시로 지구인 교실엔 간 외계인 학생들은 욕먹고, 외면받고 심지어 맞기도 했는데 너희도 그런 일을 당하니?”

선생님은 외계인 학생들이 더욱 차별받는다는 것을 강조해 말했다.

“그, 그게 아니라 이런 평가는 저희를 차별하는 거라고요.”

“난 지구인반에서도 똑같은 평가를 한다. 도대체 뭐가 차별이지?” (중략)

물리 선생님이 인경을 보았다. 인경은 손가락으로 자기 머리를 톡톡 쳤다. 자기 머리로 생각했다는 표현일 것이다. 잠시 후 선생님의 의심하는 눈빛이 풀어졌다.

“음, 악의 기운이 처음보자 많이 줄었군.”

저 말뜻을 이제는 안다. 지구인이 외계인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는 것처럼 외계인은 지구인의 악의를 피부 세포로 느꼈다. 외계인들은 지구인들의 악의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고 있다. 그러니 지구인에게 좋은 감정을 느낄 리 만무했다. 물리 선생님은 학생들을 돌아보았다.

“이 모둠에 일 등을 주는 것에 이의 있는 학생 있나?”

최고의 실험이라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외계인 학생들은 손뼉을 쳤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했다. 이번 물리 실험 덕분에 우리는 혼합반에 잘 녹아들고 있었다.

「우린 공존할 수 있을까?」 본문 중에서

(1) 물리 선생님은 지구인 학생을 차별하고 있나요, 혹은 공정하게 대하고 있나요?

(2) 「우린 공존할 수 있을까?」에서, 지구인과 외계인 학생의 혼합반을 실시하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차별’ 상황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차이,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두 단어의 의미를 비교해 보고 단어의 정의를 생각해 봅시다.

차별	
차이	

9차시 | 「우리 공존할 수 있을까?」 읽고 활동하기 2 & 책을 덮으며

1. 생각 넓히기: 과연 공존은 가능할까?

(1) 외계인이 등장하는 문학 작품을 읽고, 「우리 공존할 수 있을까?」의 내용과 비교해 봅시다.

「우리 공존할 수 있을까?」		내가 읽은 ()
	주인공	
	소재	
	주요 사건	
	주제	
	나의 한 줄 감상평	

(2)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은 누구인가요? 우리는 ‘공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2. 책을 덮고 생각해 봅시다!

(1) 『100년 후 학교』에서 가장 좋았던 이야기는 어떤 작품이었나요?
그 작품이 좋았던 나만의 이유를 적어보세요.

(2) 『100년 후 학교』를 친구에게 소개한다면, 어떤 점이 재미있었다고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주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알려줄 수 있을까요?
